

김윤석 광주 경제부시장 KOC 위원 위촉 '화제'

U대회 성공 개최 청신호

김윤석(56·사진) 광주시 경제부시장이 대한체육회(KOC)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대한체육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관례상 이례적인 것이다.

11일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과정에서 탁월한 국제적 감각으로, 유치활동을 진두지휘한 공로를 인정해 지자체 공무원으로는 유일하게 국제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됐다.

박용성 회장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김 부시장의 노하우를 대한체육회가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김 부시장이 위원으로 활동해달라고 직접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김 부시장은 향후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예산 및 행정·재정적인 면에서 대한체육회와 광

주시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시장은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려면 대한체육회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 유기적 협력관계가 필수적이었는데 마침 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성공적 대회 개최를 통해 광주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최근 대한올림픽위원회의 통합, 명실상부한 한국 체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김 부시장의 향후 활동 반경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 chadol@

MB-박근혜 회동하나

박근혜 前 대표 24일 '대통령 특사'로 유럽 방문 대통령 친서 휴대...친이-친박 화해 가능성 주목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회복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오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유럽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급격한 관계 개선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특사 파견을 전후로 청와대에서 특사를 면담하는 일정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조만간 박근혜 전 대표와의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지금까지 이뤄진 이명박 대통령과 박 전 대표간의 단독 회동은 지난해 5월 10일이 마지막이었고, 여러 사람

들과 함께 만난 것은 지난 2월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최고위원 및 중진 의원 오찬 이후 없었다.

더욱이 올해 들어 친박(친 박근혜) 진영인 김무성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 논란과 박 전 대표의 미디어법 처리 관련 발언, 친박 인사 입각설 등으로 인해 친이(친 이명박) 진영과의 상당한 갈등이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의 회동은 여러 지형의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를 반영하듯 여러 내부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특사 수용에 친이-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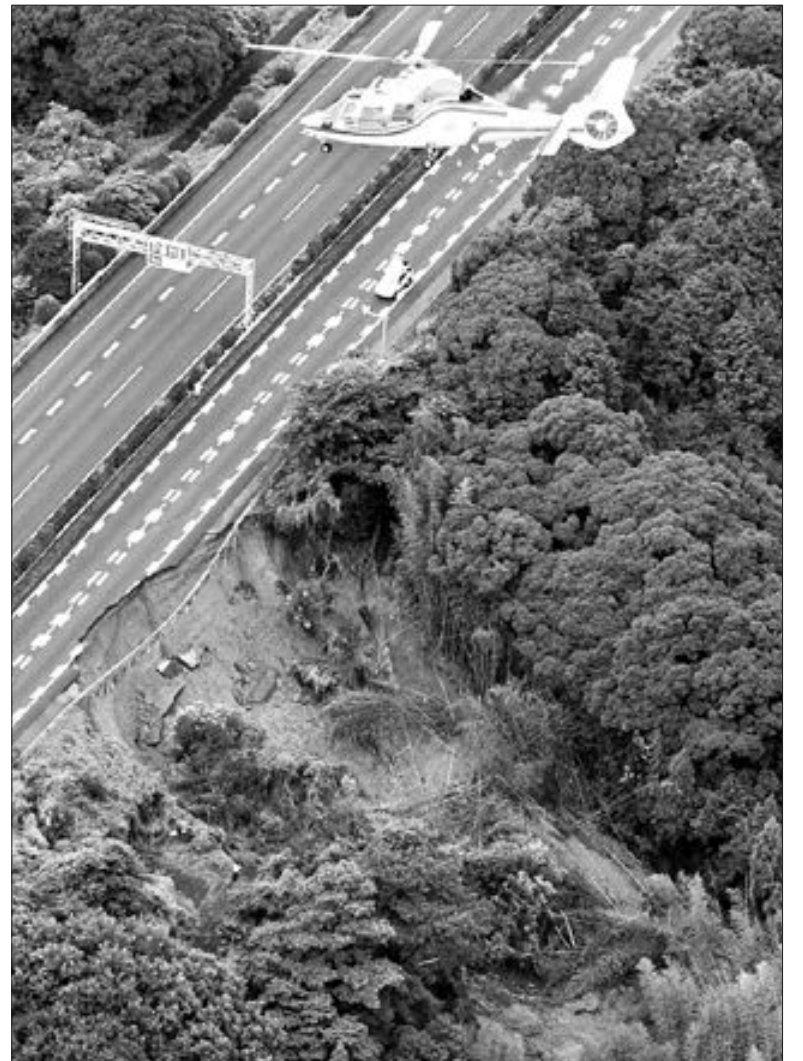
박 간의 갈등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 전 대표는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해 1월 중국에 당선인 특사로 파견됐을 때 방중 직후인 1월 23일 당선인 집무실에서 이 대통령을 면담하고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이번에도 박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이나 이 대통령의 친서를 휴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특사 파견을 전후로 이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회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표의 관계 개선을 쉽지 않은 문제"라며 "문제는 친박 진영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차기 대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11일 새벽 일본에 진도 6.6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해 열차운행이 중단되고 원자로2기 기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방재요원들이 도쿄교외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노선이 무너진 고속도로 주변을 헬기로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장 비서실장 박해구 자치행정과장

비서관 조영석씨

광주시는 11일 "사표를 제출한 김범남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박해구(사진) 자치행정과장을, 공석중인 비서관으로는 조영석 김대중컨벤션사업본부장을 12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박 신임 비서실장은 비서실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등을 거쳐 관공진흥과장을 역임했으며, 합리적인 업무 추진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조직 내상과 관계와 대인관계가 원만하다는 평가다.



두터우며,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당시 박 시장을 보좌한 경험이 있다.

문인 자치행정과장은 "비서실장은 행정경험이 많은 내부 인사로, 비서관은 언론과 민간경험분야에서 일한 외부 인사를 각각 기용함으로써 비서실의 고유 기능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프랑스 이민자 소요사태 재연 우려

피자 배달원 사망 계기 '긴장'

프랑스 파리교외의 빈민지역에서 젊은이들이 학교와 가게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년과 2007년 프랑스 사회를 들쭉이게 한 이민자들의 폭동과 소요 사태가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밤(현지시간) 파리시 동부 외곽 바를레시에서 피자 배달원인 18세 청소년 1명이 경찰의 검문을 피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다 길모퉁이에서 중심을 잃고 벽에 부딪혀 병원에서 숨겨지던 중 숨졌다.

이 청소년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이 지역 젊은이 수십여명이 집

결, 경찰을 향해 화염병과 돌을 던지면서 반발했다가 하면 일부는 학교와 가게 등의 유리창을 부수고 주차된 자동차를 불태우며 항의했다.

특히 이 가운데 1명은 경찰을 향해 총기를 발사했다고 내무부가 밝혔다.

브리스 오르트프 내무장관은 10일 성명을 내고 청소년 사망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경찰도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고 당일 경찰 차량과 이 청소년이 탄 오토바이가 충돌한 일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당국은 이번 사태가 2005년과 2007년 잇따라 발생한 청소년들의 소요와 비슷한 양상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닌지 내심 우려하고 있다. /피리=정성필기자 camus@

미얀마 수치 여사 18개월 가택연금

가택연금 규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11일 18개월 가택연금 명령을 받아 또다시 구금생활을 하게 됐다.

최근 20년 동안 14년 가량을 구금 상태로 지내온 수치 여사는 지난 5월 말 가택연금 사안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미국인 남성 존 에토가 자택에 무단 잠입한 사건과 관련, 가택연금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정치범 수용소로 악명높은 양곤의 인세인 감옥 내 특별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미얀마 법원은 이날 수치 여사에게 국가보안법 위반과 가택연금 규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징역 3년과 강제노동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日 폭우에 지진까지...

자연재해 공포 확산

일본 열도가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도인 도쿄 인근에 지진까지 엄습하는 등 천재(天災)가 겹쳐져 잔뜩 긴장하고 있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중동부해안으로 올라오고 있는 제9호 태풍의 영향으로 곳곳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효고현, 오카야마현, 도쿠시마현 등 3개 현에서 13명이 숨지고 18명이 실종되는 등 인명피해가 컸다. 재산피해도 잇따라 효고와 오카야

마 등 16개 도·부·현에서 모두 2천 296채의 가옥이 침수되고 일부 도로와 철도의 운행 중단으로 교통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또 이날 오전 5시7분께 일본 도쿄 서부 시즈오카현을 강타한 규모 6.5의 강진으로 인한 피해자가 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통신은 오후 4시 현재 중상자 3명을 포함해 시즈오카에서만 10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아이치현에서 3명, 시나가와현에서 2명, 도쿄에서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대학편입은 역시 "김영" - www.kimyoung.co.kr

자신의 실력을 최상위대학에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

2010년 대학편입 성공

광주포럼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편) TEL 227-8088

2010년 편입생

편입영어강좌

- 이과과정 (11:00 - 18:00) -
- 문과과정 (11:00 - 17:00) -
- 영어회화 (11:00 - 17:00) -
- 영어듣기 (11:00 - 17:00) -

개강 8월 1일

중고장수기 할인판매

이 상품은 기어, 능동제어, 파워

8만원~11만원

전수제 프린터

연기/냄새로 민원고충 YHB가 해결

실지 후 효과 100% 장수제입니다

민원해결기 YHB

www.yhb.co.kr